



양양소식

군정방침

I. 신뢰받는 자치행정
 I. 균형있는 지역발전
 I. 매력있는 관광개발
 I. 실속있는 복지실현
 I. 특색있는 문화창달

발행인:양양군수 / 편집인:기획감사실장 / 발행처: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Tel (033)670-2223 Fax(033)672-4242



양양국제공항 4월3일 개항

- 북한 직항로 추진 : 건교부 개항지 지정 건의 ... 4월2일 개항식

강원도의 날개로 불린 양양국제공항이 오는 4월3일 역사적인 개항에 오른다.

국제공항개항을 앞두고 공식적인 개항일자가 연기됐던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일이 오는 4월3일로 공식 확정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양양국제공항은 4월3일 개항되며 개항식은 이에 앞서 2일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항공청도 양양국제공항개항에 앞서 지난달 21일 국제기구에 양양국제공항을 공식 등록, 개항일부터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졌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양양국제공항의 한글명칭은 '양양국제공항'이며 영문은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공항코드는 'YNY'이다. 한편 오는 4월3일 개항 예정인 양양국제공항과 북한의 함경남도 선덕공항을 잇는 사상 첫 남북한 직항로 개설 협의가 빠르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일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지난97년 체결한 남북통행의정서를 근거로 양양국제공항과 북한의 선덕공항 사이에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현재 남북한 고위급전문가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양과 북한 선덕간의 직항로 개설이 확정되면 이 노선은 경수로사업에 따른 인력과 물자수송, 부상자 후송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한 협의에 따라 전세기가 투입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수로사업의 인력, 물자 수송은 속초~함남 양화간 해상 수송로와 인천에서 중국 북경을 거쳐 선덕공항에 이르는 부정기 전세기를 이용해 왔다. 양양과 선덕공항 간의 직선 거리는 150KM이며 육지가 아닌 해상공역을 통과할 경우, 비행소요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경수로 사업 관련, 인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수송선이 속초를 출발해 고성지역에서 좌초되는 등 해상 안전에 문제점이 지적된 것도 이번 양양과 선덕간 직항로 개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4월3일 개항예정인 양양국제공항은 손양면 동호리 일대73만평 규모로 조성된 국내 8번째 국제공항이며, 선덕공항은 함경남도 정평군 선덕면에 위치한 북한의 유일한 국내노선으로 현재 평양~선덕~청진구간을 정기 취항하는 기간노선

으로 알려졌다.

양양국제공항은 이번 직항로가 개설되면 국제공항으로서 위상과 대외적 지명도가 높아지는 등 개항지 지정이 한층 밝아질 전망이다.

의 정 소 식

- 신항만 건설 조기추진 촉구 건의서 발송 -

양양군의회(의장 황봉율)는 지난달 6일 제90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양양신항만 건설촉구 건의서"를 채택,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고 조기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98년 해양수산부의 환동해권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신항만 건설을 위해 추진된 '동해안 항만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양양군 여운포리가 신항만 예정지로 결정돼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군민들 모두가 고무돼 있었다"며 "그러나 신항만 건설 예정지로 결정된지 2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확정고시를 지연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조짐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구심마저 팽배해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강원도와 양양군은 4월 개항 예정인 양양국제공항 운영활성화를 위해 양양신항만을 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육성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며 "막대한 재정투자로 조성된 양양국제공항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양양신항만 건설만이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며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양군의회는 특히 건의서에서 "양양신항만은 수도권의 물류분산에 기여함으로써 물류수송비용 절감에 효과를 가져온다"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함께 환태평양시대 동북아 지역교역의 거점항만 역할, 남북통일을 대비한 동해안의 중심항으로 낙후된 강원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사이버민원실 개설

- 주민불편 등 여론수렴 ~ 인터넷 민원 접수.처리 -

우리군은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상담과 신청,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사이버민원실을 개설하는 등 주민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군은 지난 4일 군 홈페이지에 주민불편 사항과 민원처리에 관한 문의를 직접 게재하는 사이버민원실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우리군 사이버 민원실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을 통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인터넷 부작용이 확산됨에 따라 실명을 거론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민원상담에서 신청, 신고센터 운영, 세무 서비스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같이 실명으로 올려진 민원사항에 한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우리군 의회 의장과 관련 인터넷 민원사하이 당사자를 잘못 기재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등 문제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실무책임자들의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항주변 조각공원 추진

- '설미원 미술관' 계획서 제출, 313억원 규모 -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공항진입로 주변지역에 대규모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칭 '설미원미술관'사업이 손양면 학포리 산147번지 일대 16만평의 부지에 야외조각공원, 실내 미술관, 기념품 판매점, 전망대와 휴게실 등을 갖춘 대규모 조각공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우리군은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조각공원 조성계획 제안을 지난달 26일 국토연구원에 제출, 검토를 의뢰하기로 했다. 설미원 미술관 추진사업단은 야외 조각물 3백점, 실내 전시품 1백50점을 비롯한 1백36억원대의 작품 전시비용과 건축·조경비 1백77억원 등 모두 3백13억원 규모를 투자해 대규모 조각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정 살림살이 설명회

우리군은 지난 2일 서면을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관내 6개 읍면을 순회하는 2002년 새해 군정살림살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6일간 열리는 군정 살림살이 설명회는 지난 6일 현남면, 7일 손양면, 9일 현북면에 이어 오는 12일 양양읍과 13일 강현면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2002년 양양한우 활성화 사업추진

- 올해 축산 시책 확정...송아지생산 안정제 등 5개 사업 역점 -

우리군은 축산농가 활성화와 안정적 한우가격 유지를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한우다산 장려금제 사업 등 2002년도 축산시책사업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군은 관내 한우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의 안정적 가격공급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한우다산 장려금제, △한우거세 장려금제, △한우등록 사업,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 모두 5개 사업에 대한 시책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축산시책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양양한우회원 30농가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교육사업을 개최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1마리당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보전을 통해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 유도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송아지 보험제도로 불리는 송아지생산 안정제는 안정기준 가격에 따른 부담금 1만원에 가입한 후 계약체결, 송아지생산 신고, 생산확인 절차, 보전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군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의 정착을 위해 1천4백두에 대해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우번식사업 권장을 위한 다산장려금제, 한우품질 향상에 따른 거세장려금제가 추진되며 한우등록 사업,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농림사업 예산 1백88억원 신청

- 2003년도 예산 심의... 농업·축산 등 40개 사업투자 계획 -

우리군은 2003년도 농림사업과 관련, 1백88억여원의 예산을 신청한 가운데 농업, 축산, 산림, 기반조성, 유통 등 40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비 신청에 따라 2003년도 농림사업은 5개 분과에 걸쳐 국비 1백30억원, 지방비 36억원 등 모두 1백88억원이 농림사업비로 신청된다. 군은 농림사업 예산신청을 위해 지난달 25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신청사업기관 관계자 및 농업개발분과 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개발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03년 농림사업 예산신청에 따른 심의 △2002년 농림사업 대상자 2개 사업 확정 △2002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대상자 등 7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산물가공 산업 육성 등 농업분야의 주요사업과 산림, 축산분야 사업들을 추진한다. 기반조성분야는 영농규모화 사업, 장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현남지구 중규모 용수개발, 조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이 실시될 예정이며 유통분야의 경우, 농산물출하사업이 추진된다.

불법선거 추방기원 연등 띄우기

- 양양군 선관위 주최 ... 6.13 지방선거 입지자들 한자리 -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근수)는 오는 6월13일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양양읍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정원대보름 맞이 행사에서 이진호 양양군번영회장, 안석현 양양군자유총연맹 지부장, 양동창 전 양양군 부군수 등 양양군수 출마 예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선거 추방기원 연등 띄우기 행사를 개최하며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원 출마 예상자인 이기우씨와 양양군의회 박상형 의원, 기초의원 출마 예상자 박태석씨도 참여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동참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간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불법선거 추방 행사는 불법·타락, 지연·학연·혈연, 금품·향응 등이 새겨진 등불을 남대천에 띄워보내며 출마예상자들간 공정한 선거대결을 기약했다. 양양군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분위기 과열과 불법선거운동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런 일 했어요!!!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김준영씨가 지난달 20일 양양읍 의용소방대장에 취임했다.



<충렬사 제례식>

3·1절을 맞아 오인택 군수 등 관계자들이 충렬사에서 제례식을 가졌다.



<3·1절 달리기 대회>

국제공항 개항을 기념하는 양양군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군정살림살이 설명회>

2002년 군정살림살이 설명회가 지난 2일 준서면을 시작으로 개최됐다.



<중국 공무원 교환근무>

중국 공무원 황예빈씨가 오인택군수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모습



<현산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지난 5일 현산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농업인 컴퓨터 교육열기 "후끈"

- 군농업기술센터...'난'가꾸기 교육 인기 -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범)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양양지역 농업인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보화 추진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한 1차 무료 정보화교육에는 농한기를 맞은 농업인 20여명이 참가해 컴퓨터 교육열기를 내뿜었다.양양여성회관 전산실에서 실시된 정보화교육은 참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능력, 농업정보검색, 농가경영 장부운영, 농산물 출하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컴퓨터 운용방법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이번 정보화교육은 특히 관내 여성농업인 13명이 지원해 농촌지역 여성들의 컴퓨터 관련 관심도와 교육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도 35세부터 60세 이상 다양하게 참가했다.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1주일간 2차 무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하절기 컴퓨터 교육도 펼치는 등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범)가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난 가꾸기' 교육도 주부들의 취미활동으로 각광 받고 있다.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8일 대회의실에서 도시주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수요 증가와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한 양란가꾸기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난가꾸기 교육은 심비디움, 덴파레, 호접란, 온시디움 등 양란을 계절별로 관리하는 방법과 분갈이 실습, 순치기 관리요령 실습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태평양시대 의식전환" 교양강좌

- 지난달 27일 김동길 교수 초청, 공무원 및 주민 대상 -

우리군은 지난달 27일 관내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동길 박사를 초청한 가운데 '태평양시대 공무원 및 주민 의식전환 방향'을 주제로 2002년 1/4분기 교양강좌를 개최했다.오후 2시 양양군문화관에서 실시된 이날 교양강좌는 군청을 비롯한 관내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3백명이 참석, 국제화 시대를 맞는 자세 및 의식전환에 관해 원로학자의 강연을 청취했다.김동길 박사는 이날 교양강좌에서 "양양국제공항 개항 등 국제화 시대를 맞아 환태평양 지역의 중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양양군의 발전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양양군의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국제화의 중심축을 이룬다는 각오와 적극적인 수용자세 및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박사는 또한 "국제화의 발전에 따른 제도개선도 이뤄져야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나 자신부터 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양양의 경우, 문화적 전통과 예향적인 부분이 강한 모습에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군이 주최한 교양강좌 강사로 초청된 김동길 박사는 1928년 평양출신으로 51년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제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연세대 명예교수로 활동중이다.우리군은 이번 교양강좌에 이어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세차례에 걸친 교양강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상속의 우리> 첫시집 발간

- 강현출신 신주원씨, 고향에 대한 정취 담아 -

우리군 강현출신으로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주원씨(본명 신미라, 사진)가 첫시집 <세상 속의 우리>(문예사조)을 펴내 화제다.신씨의 첫시집에는 <마음의 눈>, <바다 같은 사랑>, <청초호 그곳에서>등 신씨가 그동안 써온 63편의 시가 실렸다.시집 표제시인 <세상 속의 우리>라는 이 작품에서 시인은 한없이 넓은 세상 속에서 끝없이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시집 서문에서 감창직씨(한국자유시협 회장)는 "불붙는 시심의 작은 영지에 이제 막 경작의 첫삽을 뜨는 신주원 시인의 마음 먹은 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집념이 강해 믿음이 간다"고 평가했다.신씨는 시집 후기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닦으며 순수한 영혼의 꽃으로 독자와 정겨운 이야기 나누는 향기로운 글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 연어의 나라 일본을 다녀와서 -

숙소로 와서 피곤함을 풀고 하루 일과를 정리했다. 다음날은 우리들과 밀접한 농가를 방문했다. 우선은 '컨트리 엘리베이터 하우스' 에 견학을 하였다. 농협의 생산과장이란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였고 우리는 궁금한 점을 열심히 물었다. 농산물 생산과 판매과정의 농민에게 떠넘겨진 우리나라와는 달랐다. 규격화된 농산물은 항상 농협 판매장에서 받아 주었고, 농민들도 이에 맞게 노력을 한다고 한다. 농민과 농협, 정부가 협조가 되어 농업을 이끌어 간다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나라의 농업현실을 한참동안 생각해 보면서 시청공민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요리실습이 한창이었다. 연어요리가 신세대 입맛에 맞게끔 개발하고 있는 이들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들이 고집하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연구해 내야 하지 않나 싶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연어 가공 가정'이었다. 15대째 가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이들은 가내 수공업형태로 이어져 왔고 연어를 가공하는 15명 정도의 손놀림이 매우 빨랐다. 100여 종류의 연어 요리가 개발되어 있다는 이 도시는 연어 하나로만 수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모으고 있었다. 다시 '이요보야' 회관으로 돌아와서 연어를 키워내고 방류해서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를 연구한 자료들과 생산물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한국 현지인의 배려로 비빔밥으로 맛난 점심을 하고 옷칠로 유명하다는 공예관을 찾았다. '쯔꾸공예관'에 들어섰을 때 수공업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지 알 수 있었다. 단지 옷칠이란 것 하나로 사람들을 끌어들었다. 또한 이런 수공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행정업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12월 첫날 우리는 니가따시로 이동하였다. '북방 문화박물관'견학은 우리나라의 오죽헌을 연상시켰다. 우리와 틀린곳이

있다면 옛것 그대로 크게 변함없이 잘 보존했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 옛 무사 집안의 생활을 잘 보여준 문화재였다.

다음은 백산공원에 있는 백산신사였다. 조상을 숭배하는 일본인들의 강한 생각은 이곳에서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들어서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왜 추운 날에 오는 지 알 수 있었다. 기간을 정한 3세~7세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참배하는 날이라고 했다. 공원안은 도시 한가운데 있었다. 거리로 이동 도중 길거리는 담배꽂초 하나없이 깨끗한 거리였다. 니카타시의 "향토 자료관"은 이 시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특산품을 살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날 일본 황태자비가 공주를 출산했다. 우리가 무라카미시를 출발하고 나서 말이다.

마지막날 우리는 비가 간간히 내리는 틈을 우산을 쓰면서 이동했다. 1800년대 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구현의사당으로 향했다. 두번의 큰 지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서양식 건물로써 중요한 문화재라고 했다. 이 곳에서 잠깐 이동한 곳은 '니가따시 미술관'이었다. 시에서 건물을 내어주고 언론사에서 후원을 하면서 인근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부터 해외 유명 작품까지도 전시한다는 설명이었다. 우리가 간 이날, 운 좋게도 피카소의 "기타와 오렌지"라는 작품을 볼 수 있었다. 나에겐 충격이었다. 이런 미술관은 일본의 어느 도시든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설명에 말이다. 문화적공간에서 굶주리는 내 아이들 생각이 간절해서 두장의 명작엽서를 사들고 나왔다.(다음호에 계속) - 현남면 하월천리 이진주 -

양양문화관·일출예식장 대규모 보수

- 6월~7월까지 휴관 ... 사업비 9천만원 투입 -

우리지역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양양문화관과 일출예식장이 정밀진단결과 이용객들의 불편 및 안전 등 문제점이 노출돼 휴관과 함께 보수,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군은 7월까지 사업비 9천만원을 들여 문화관의 지붕 전면교체, 무대용 바텐 구동시설 교체, 전기시설 교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예식장 관련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을 전면 교체한다. 이에 따라 6~7월 두달 동안 마무리 공사를 마친 뒤 주민들에게 쾌적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양문화관은 그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와 설명회, 사회단체 정기총회 등 회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일출예식장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편안한 예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우리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휴관하는 만큼 많은 양해를 바란다”며 “완벽한 개·보수 공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복지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